

보도시점 2025. 8. 10.(일) 16:00

배포 2025. 8. 10.(일) 15:00

APEC 무대에서 '케이-푸드 플러스(K-Food+)'수출 외교 박차

-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, 베·말과 농업·식품 협력 확대를 위한 양자외교 전개
- 한국산 소고기·닭고기 및 과일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

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 장관은 8월 10일(일) 인천에서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쩌 득탕(Trần, Đức Thắng)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 직무대행 및 모하마드 빈 사부(Mohamad bin SABU)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국별 농업정책 현안 및 관심사를 논의하고,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.

베트남 쩌 득탕 장관 직무대행은 한국의 지속적인 공적개발원조(ODA)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,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 아울러 양국 농식품 수출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 개최를 제안하였다. 송 장관은 베트남이 한국의 주요 농식품 교역국이자 ODA 파트너로서 중요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, 한국산 닭고기와 과일(키위·온주밀감 등)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. 또한 현재 진행 중인 ODA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말레이시아 사부 장관은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

농업 및 식량안보 공조 강화, 검역당국 간 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. 송 장관은 양국 간 농식품 분야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,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산 냉장 소고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.

* 우리나라는 '23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할랄 한우 수출을 시작하였으며, 현재 말레이시아로 냉동 소고기만 수출 가능하나 냉장 소고기 등 수출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 중

송 장관은 “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식품 4위 수출국으로 중요도가 높으며, 말레이시아는 할랄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이자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여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”이라며, “이번 면담을 통해 상호 간 농식품 교역과 협력이 한층 확대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실 농업통상과	책임자	과 장	유정연 (044-201-2051)
		담당자	사무관	홍성희 (044-201-2052)